

## HEADLINE NEWS

### 市직원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소득 에서 공제 (뉴욕)

뉴욕市는 대중교통 이용장려와 市공무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각종 세금·보험료 산출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공제시켜 주는 대중교통편익 프로그램(TransitBenefi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市공무원이 市에서 발행하는 대중교통카드(Premium TransitChek MetroCard)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비용만큼 소득세, 사회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서 공제된다. 만일, 연봉 26,000달러의 공무원이라면 연 2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교통카드 이용료는 1개월에 63달러로서, 이 카드가 있으면 시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횡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市공무원이 이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카드 이용료는 매주 또는 격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nyc.gov/html/opa/html/taxbreaks-transit.html](http://nyc.gov/html/opa/html/taxbreaks-transit.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조례화 (동경)
- ② 세계제일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녹화사업 추진 (북경)

### 도시환경

- ③ 「개똥 없는 거리」 캠페인 전개 (프라하)
- ④ 빗물 재이용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요금 연간 30% 절감 및 토양 활성화 도모 (일본: 야치요市)
- ⑤ 고품쓰레기의 전기에너지화 추진 (멕시코: 몬테레이市)
- ⑥ 나무심기와 수목관리로 환경개선 추진 (옥스퍼드)

### 도시교통

- ⑦ 도시고속도로 경관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Adopt-A-Highway' 프로그램 시행 (뉴욕)
- ⑧ 자전거통근자를 위한 지하 자전거주차장 설치 (독일: 뮌스터市)

### 사회복지

- ⑨ 청소년 방과후 활동관련 통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시카고)
- ⑩ 전철역에 전시용 「게놈열차」 설치 (파리)

### 행.재정

- ⑪ 혁신기술·제품 개발한 벤처기업에 「벤처기술대상」 수여 (동경)
- ⑫ 「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 작성·공개 (일본: 도쿄로자와市)
- ⑬ 모범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 「2001 IEDC 대상」 수상 (토론토)

### ①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조례화 (동경)

일본 東京都 종합환경영향평가시행심의회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업실시단계에서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더욱 확대해,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등을 기초로 여러 대안계획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비교 검토해보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심의회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실시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보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환경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회는 개발규모 30ha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으로 하고, 점차 민간사업계획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都는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회 산하에 조례화 추진을 위한 검토조직을 최근 설치했다.

(日本經濟新聞, 10. 23)

### ② 세계제일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녹화사업 추진 (북경)

중국 北京市 녹화위원회는 '2007년을 목표로 세계제일의 「생태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생태도시」란 생태 학의 원리를 기초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가리킨다. 市는 이를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녹화 구획, 산지·평원·위성 도시의 녹화 및 미화, 사막화 대책, 도시 중심지역의 녹화 등 10개 부문의 녹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市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지난해의 2배에 해당하는 7억엔 이상의 자금을 녹화사업에 투입해왔다.

(인민망 일본어판, 10. 18)

### ③ 「개똥 없는 거리」 캠페인 전개 (프라하)

체코 프라하市는 애완견의 무단 배설에 따른 거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똥 없는 거리」 캠페인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라하 제14區는 그동안 애완견 배설물 청소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으나, 최근 예산지출은 도로 청소에 국한하고 배설물 청소 등은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했다. 제14區는 이를 위해 개 주인이 배설물을 담을 수 있도록 봉투를 배포하고 거리에 캔을 비치했다. 1999년 현재 프라하에 등록된 애완견은 70,393마리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he Prague Post, 10. 3)

### ④ 빗물 재이용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요금 연간 30% 절감 및 토양 활성화 도모 (일본 : 야치요市)

일본 치바(千葉)현 야치요(八千代)시의 한 건설업체는 최근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개량해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의 세정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남은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며, 시설 설치면적은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토양을 활성화하고, 하천으로의 유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治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업체는 향후 지역 개발업체나 지자체에 이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다.

‘우라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홈통을 통해 모은 빗물을 3중 필터로 여과해 주차장 밑에 설치한 저류탱크에 저장시킨다. 탱크에 저장된 물은 펌프를 이용해 화장실의 세정수나 세탁,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필요 용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땅속으로 침투시키며, 갈수시에는 탱크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러한 재이용으로 상수도요금을 연간 30% 정도 삭감할 수 있고, 빗물을 하천에 방류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업체는 조정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지자체는 하천의 확대공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종래에는 빗물을 침투시키기 위해 ‘저류침투조’를 탱크에 같이 설치하였으나, 이 개량형에서는 탱크시설만으로 침투량을 조절할 수 있다. (日本經濟新聞, 10. 18)

### 5 고형쓰레기의 전기에너지화 추진 (멕시코 : 몬테레이市)

멕시코 제3의 도시인 몬테레이(Monterrey)市の 대도시 고형쓰레기처리 기관인 Simeprodesco는 민관합동으로 ‘쓰레기의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Simeprodesco는 최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를 금년 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이 합작회사는 2002년 말 또는 2003년 초에 시험가동을 거쳐 2003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메탄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몬테레이市の 가로등 및 공공운송시스템의 동력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메탄수집시스템과 발전소는市외곽인 Simeprodesco 쓰레기매립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매립된 고형쓰레기로부터 분출되는 가스는 발전소에 공급되며, 그 잉여분은 수력펌프시스템에서 사용될 계획이다.

([www.bnamericas.com/story.xsql?id\\_noticia=75533&Tx\\_idioma=l&id\\_sector=4](http://www.bnamericas.com/story.xsql?id_noticia=75533&Tx_idioma=l&id_sector=4))

### 6 나무심기와 수목관리로 환경개선 추진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市 숲관리위원회는 도시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존단체, 학교, 기업체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존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는 식수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이 정책이 모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식수와 수목관리 권장,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지방의 관련단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각종 지원 제공, 정책의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각종 회의 주관, 관련 프로젝트와 행사 추진에 필요한 기금 및 후원금의 확보, 관련 정책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oxford.gov.uk/oxford/environment.nsf/leadpages/ForestofOxford?OpenDocument&Start=1&Count=99&Expand=2](http://www.oxford.gov.uk/oxford/environment.nsf/leadpages/ForestofOxford?OpenDocument&Start=1&Count=99&Expand=2))

### 7 도시고속도로 경관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Adopt-A-Highway’ 프로그램 시행 (뉴욕)

미국 뉴욕시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1마일씩 분할해 시민단체, 기업, 시민 등에게 관리를 맡기는 ‘Adopt-A-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단체, 기업, 일반인은 자신이 원하는 구간 1마일 또는 그 이상을 맡아 최소 1년 동안 관리하게 되는데, 주로 청소관리와 화분설치, 초목들의 식재, 나무가꾸기 등을 하게 된다. 청소는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해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스폰서 광고판을 만들어 해당구간에 설치해 주고 있다.

([nyc.gov/html/dot/html/franchises/adopthwy.html](http://nyc.gov/html/dot/html/franchises/adopthwy.html))

### 8 자전거통근자를 위한 지하 자전거주차장 설치 (독일: 문스터市)

독일 문스터시는 중앙역 일대의 자전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 4,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지하 주차장을 1999년 6월 설치했다. 대학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는 매일 기차로 중앙역에 도착하는 통근자의 수가 5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통근자를 시내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이다. 시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자전거 도난과 손상을 우려, 유료인 지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 현재 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2,500명 정도 된다. 월 주차비는 약 7,000원, 하루 주차비는 600원 정도이다. 이곳 주차시설에서는 유료로 자전거 수리 및 임대도 한다.

문스터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에는 1947년에 모든 간선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10. 31)

### 9 청소년 방과후 활동관련 통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지난 2월부터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키즈스타트(KidStart)' 운동을 시작했다. 市는 이를 위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배너로 묶은 '키즈스타트'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청소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나이와 지역, 원하는 정보를 기재하면, 市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근처의 공원이나 도서관, 지역사회활동 관련정보 등도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의 특징은 관련정보를 市부서별이 아니라, 주제별·프로그램별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한 점이다.

([www.govtech.net/news/news.phtml?n=2001.10.01](http://www.govtech.net/news/news.phtml?n=2001.10.01))

### 전철역에 전시용 「게놈열차」 설치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인간게놈 발견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스페리츠역 구내에 전시용 「게놈열차」를 설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놈열차」에는 인간게놈의 이해에 필요한 유전자·DNA·단백질의 역할 및 변형, 유전인자와 게놈의 배열 및 분석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비디오, 3차원 사진, 모형 등으로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게놈열차」에는 인간게놈과 유전자 복제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되어 있다. 프랑스 교육부와 보건부의 후원을 받아 아방티스제약그룹과 파스퇴르연구소가 공동으로 만든 「게놈열차」는 올해 말까지 프랑스의 20개 도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26102001.htm](http://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26102001.htm))

### 혁신기술·제품 개발한 벤처기업에 「벤처기술대상」 수여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1년도 「벤처기술대상」 시상식을 열고, 컴퓨터 입체 그래픽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의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에 대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혁신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힘쓴 벤처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 정보, 복지의 3분야에서 130개 업체가 응모했다.

(日本經濟新聞, 10. 11)

### 「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 작성·공개 (일본 : 토코로자와市)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토코로자와(所澤)시는 지난 10월 24일 市の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차 대조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對시민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비용을 분석한 「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다. 市는 이를 11월중에 홍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는 지난해 일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의 결산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행정서비스비용은 인건비 약 211억엔과 도로 유지보수비, 복지서비스 경비 등을 합쳐 약 676억 3,500만엔(1인당 약 20만 6,000엔)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 되는 수수료, 일반회계 충담금 등을 공제하면 약 34억엔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市는 앞으로 개별사업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계산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1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10. 25)

### 모범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 「2001 IEDC 대상」 수상 (토론토)

국제경제발전협의회(IEDC ;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경제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시에 시상하는 「2001 IEDC 대상」을 캐나다 토론토市에 수여했다. 협의회는 토론토市가 ‘토론토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실천방안을 창의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토론토 경제발전전략’은 1998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 진단, 기업 조사, 국제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번영 및 고용창출 그리고 건전한 세수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경제발전전략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으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혁신 및 디자인의 중요성,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환경의 질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경제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로 인재(People), 입지(Place), 번영(Prosperity), 위상(Positioning), 협력(Partnership)의 5P를 제시하고 있다.

([www.city.toronto.on.ca/business\\_publications/econdev\\_strategy.htm](http://www.city.toronto.on.ca/business_publications/econdev_strategy.htm))